

-을/를 불문하고

~을/를 불문하고, ~에 관계없이

어떤 구분을 상관없는 것으로 제쳐 둡니다. 다음 표현과 거의 바꿔 쓸 수 있어 짝으로 익혀 두면 좋습니다: -을/를 막론하고

■ 결합 방법

명사 종류	형태	예
받침 있음	을 불문하고	국적을 불문하고
받침 없음	를 불문하고	이유를 불문하고
짝을 이루는 명사	흔한 선택	남녀를 불문하고
조사 필요	을/를	이유 불문하고는 비격식
유의어	-을/를 막론하고	이유를 막론하고
구어 형태	-에 상관없이	나이에 상관없이

■ 언제 쓰나요

조사는 일반 규칙을 따릅니다. 받침 있는 명사에는 을, 받침 없는 명사에는 를을 씁니다. 불문하다는 ‘묻지 않다’라는 뜻으로, 그 구분을 아예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

이 표현은 명사에만 붙으며, 이유, 국적, 남녀, 시기, 장소처럼 이미 구분을 나타내는 명사를 선호합니다.

막론하고와의 차이는 미미합니다. 막론하고는 ‘하나하나 따지지 않고’, 불문하고는 ‘아예 묻지 않고’ 쪽에 가깝습니다. 실제로는 대부분의 문장에 둘 다 어울리지만, 불문하고는 다음 분야에서 조금 더 흔합니다: 규칙과 조건.

문체는 격식적인 문어입니다. 구어에서는 상관없이가 그 역할을 합니다.

■ 예문

- 1 이유를 불문하고 지각은 결석으로 처리됩니다.
- 2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.
- 3 시기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4 남녀를 불문하고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.
- 5 방법을 불문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태도는 위험하다.
- 6 장소를 불문하고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
■ 비교

-을/를 막론하고
거의 같습니다. 막론하고는 경우를 하나하나 따지지 않는다는 느낌이고, 불문하고는 처음부터 묻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. 규칙과 규정에서는 불문하고를 더 선호합니다.
남녀노소를 막론하고 / 이유를 불문하고

-에 상관없이
뜻은 같지만 일상적인 문체입니다. 상관없이는 구어에 어울리고, 불문하고는 공식 문서임을 드러냅니다.
나이에 상관없이 (구어) / 국적을 불문하고 (규정)

-더라도
-더라도는 하나의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고, 불문하고는 범주 전체를 한꺼번에 제쳐 둡니다.
아무리 바쁘더라도 (얼마나 바쁘든) / 이유를 불문하고 (이유가 무엇이든)

■ 주의

- ✗ 바쁜 것을 불문하고 참석해야 합니다.
- 아무리 바쁘더라도 참석해야 합니다.
불문하고는 범주를 나타내는 명사를 받습니다. 바쁘다는 절에는 양보의 어미가 필요합니다.
- ✗ 국적 불문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. — 공식 공지문에서 (✗)
- 국적을 불문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.
글에서는 조사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. 조사 없는 형태는 제목이나 편한 말에서만 나타납니다.
- ✗ 야, 이유 불문하고 그냥 와.
- 야, 이유가 뭐든 그냥 와.
불문하고는 규정에 쓰는 말입니다. 대화에서 쓰면 규칙집을 읽는 것처럼 들립니다.